공정성 외면한 선거세칙

해설…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몇가지 의문

선거 공고 며칠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세칙이 개정되어 학우들에게 공개적인 토론이나 공고, 혹은 안내조차 도 없이, 후보자들에게, 그것도 등록마감일에 설명되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개정된 시행세칙의 몇몇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우선 개정시행세칙의 7조에 의하면 후보는 3대단대 이상, 회원 1천인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회장의 피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의 8백인보다 2백인이 많아진 것이다. 경희학우 8천5백 선거권자중에 1천 학우의 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입후보마감을 열라 앞두고 2백명이상의 추천을 요구한다면 이미 준비에 들어간 입후보 예정자들에겐 당혹감을 줄 것이다. 또한 11조 2항에는 '유인물에 의한 타후보 인신비방, 중선관위 모략행위, 학생회에 대한 품위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비방 및 모략행위는 금한다'고 되어있는 도 중선관위는 위의 사항들이 위배되었다고 판단되었을시 중선관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 및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공고할 수 있으며 당선공고 후에도 적발이 되면 같은 조건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무소부지한 권력을 지녔다. 그러나 이처럼 모호한 조건으로 후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희학우들이 중선관위의 공정성을 믿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선관위는 각 단과대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총대의원장이 선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의원이란 경희학우의 대표자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이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연히 각 단과대의 대표자들의 공론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원칙론일 뿐이라고 하겠는가. 제31조 '당선인'회원의 직접선거로 과반수 투표에 최대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학년은 투표율에서 제외하되 투표권은 인정하고 투표자에 한해서 투표율에 포함한다'라는 상식이하의 시행세칙도 문제려니와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 다음에 있다. 같은 31조에 '단, 단독후보시 투표율에 관계없이 과반수 찬성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는 세칙은 과연 경희의 대다수 선거권자들에게 총학생회장만 있으면 되고 학우들의 다수의 의견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는가.

〈취재부〉

모호한 판단기준, 중선관위 독선 우려

공개적 절차없이 시행세칙 개정돼 물의

데 이 또한 어디까지가 좀위해손의 묵계이 되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선관위 유권해석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게다가 5항에 '도덕적 판단으로 위배되는 행위'는 더욱 엉성하여 과연 이것이 총학생회장을 뽑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선거법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그러데 이러는 적발이 되면 같은 조건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무소부지한 권력을 지녔다. 그러나 이처럼 모호한 조건으로 후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희학우들이 중선관위의 공정성을 믿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선관위는 각 단과대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총대의원장이 선임하였다고 한다. 그 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학교는 제반사항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학생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보다도 더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정책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배종근 기자〉

'94 경희 가을 축전

'94경희가을축전이 서울은 지난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수원은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각각 양 캠퍼스에서 거행되었다.

기존의 체전중심 가을축전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접맥한 이번 축전은 다양했던 행사만큼이나 다양한 평가들이 분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와 학생들의 부분적인 만족을 획득한 것도 사실이다.

양캠퍼스 출전의 표정 그 한 면을 사진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일체의 초청공연이나 개런티 없이 '기획에서 평가까지 경희인의 손으로'를 기치로 내린 이번 가을대동제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연예인 초청행사가 없어 말그대로 학생들의 손으로 함께 만드는 대동제의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사진은 열린콘서트 행사 중 민요연구회가 공연하는 장면.

도서관 및 대학문화거리 완공기념 행사로 처뤼진 수원캠퍼스 대동제는 도서관 완공이 지연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외대 민주광장에서 열린 '세계민속음식제'

◇해설… '94 학자투쟁을 바라보며

학생측, 합의서 불이행에 불만

상호불신속 "폐색국면"

지난 2일 대표자 협상의 격렬에서 수원캠퍼스 학생들의 서울캠퍼스 합의방문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며 이런 양측의 대립을 만들어낸 '합의서 불이행'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일 집회를 갖고 학교측에 '합의서 불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9년부터 작성되어온 합의서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학교측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지만 지금껏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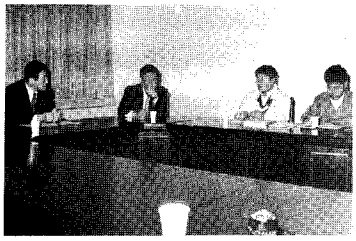
합의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공사는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도서관의 경우 합의서대로라면 9월말 완공 되야함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계속 해왔지만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성실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질책을 받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며 학생들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은 많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연히 불가피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합의서에 완공기일이 약속된 것인만큼 학생측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 학생측의 주장이다.

대학문화거리 건설 중에서 야외소극장 건설, 자연대 증축, 교양강의동 건설, 전용하키장 건설등 제대로 지켜진 사안은 없다. 교양강의동의 경우는 도서관 완공의 연기로 인해 자연히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야외소극장은 아직까지 착공도 하고 있지 못하다. 아직 설계가 덜 되었다는 것이 학교측의 해명이다. 자연대 증축이나 전용하키장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렇게 계속되는 학교측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 총학생회는 불이행시 처벌조항까지 삽입시킨 합의서 재작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이전에 학교와 학생들간에 작성되었던 합의서는 신의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기보다는 약속을 위한 약속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제하고 "지켜지지 못할 합의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서 불이행과 함께 최근 계열화 문제로 학생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나서자 학교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교측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를 믿어달라'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일반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합의서가 약속된 시일내에 지켜지지 않더라도 여겨지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사태가 현재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한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난 2일 공과대 311호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학생 대표자 협상에서 양측은 좀처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인터뷰 정동성 총동문회장을 만나

동문회의 역사는 학교의 역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44주년의 경희 역사는 경희총동문회의 40년 역사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동문회의 활동은 다른 대학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전체적인 공과는 임기가 끝날때 평가받겠지만 새로운 동문회 집행부가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이 학교 당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정동성 총동문회장을 만나 동문회의 현황, 중점사업, 학교에 당부하는 말들을 들어보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원주치악예술관에서 가을맞이 가곡의 밤을 개최하여 조영식 학원장님과 공형일 총장님, 정태류 총동창회 부회장님, 백상기 동문회보 주간, 안영철 홍보실장 및 1천여명의 교수, 동문들이 참석하여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지요. 또 이보다 조금 앞선 20일에는 마산에서 조차술 동문을 회장으로 하는 경남지부를 결성, 서도 차원의 지부동문회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동문회 지방조직 강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지역별로도 동문회가 조직되어 있고, 해외에도 LA, 뉴욕 등에 동문회가 있습니다만 서도 지부 차원에서 모양새를 갖춘 동문회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강원지부, 충남지부, 제주지부를 잇달아 창설하고 하반기까지는 전국과 해외지부까지 조직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재가 파악 안된 동문들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았는지요.

=찾아낸 동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의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동문들의 인적사항은 컴퓨터에 모두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단과대학 대표들이 여러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진 끝에 10회 동문들의 모교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문들이 헐떡고개도 올라보고, 자연박물관도 둘러보고, 선농호에도 들르면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좋았습니다. 10회 동문들이 모교방문의 물꼬를 텄는데 전체동문 차원에서 모교방문계획은 없는지요.

=동문회의 가장 큰 행사는 연말에 '경희의 밤'을 개최하는 것이었고 고생이 심했지요.

—동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의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동문들의 인적사항은 컴퓨터에 모두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단과대학 대표들이 여러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진 끝에 10회 동문들의 모교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문들이 헐떡고개도 올라보고, 자연박물관도 둘러보고, 선농호에도 들르면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좋았습니다. 10회 동문들이 모교방문의 물꼬를 텄는데 전체동문 차원에서 모교방문계획은 없는지요.

=동문회의 가장 큰 행사는 연말에 '경희의 밤'을 개최하는 것이었고 고생이 심했지요.

대학발전이 곧 동문회 발전
모교의 미래위해 최선다할터

=제가 취임한 5월 당시에는 정확한 주소가 확보되어 동문회보를 발송할 수 있었던 동문들의 수가 1만여명 이었습니다. 지금은 2만3천여명에게 동문회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5만명의 동문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동문들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텐데요.

=동문들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인하였습니다. 사무처 요원들이 나서기도 했지요.

내년부터 '모교를 잊지말자'는 취지로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5월에 가질 계획입니다. 모든 동문들이 한날에 모교를 방문, 정기자랑도 갖고 학교에 기금도 내고 하는 일이 앞으로 동문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동문회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간의 평가입니다. 조직역량이 미약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이 경쟁하듯 동문회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두 대학은 라이벌관계이지만 두 대학의 후원자인 동문회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회도 경쟁상대를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문회의 발전은 대학의 발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동문회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동문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은 4.19당시 총학생회 위원장, 전국대학생 총연합회 의장직에 있었습니다. 4.19유공 대한민국 건국포장을 받으셨는데 당시를 간략히 회고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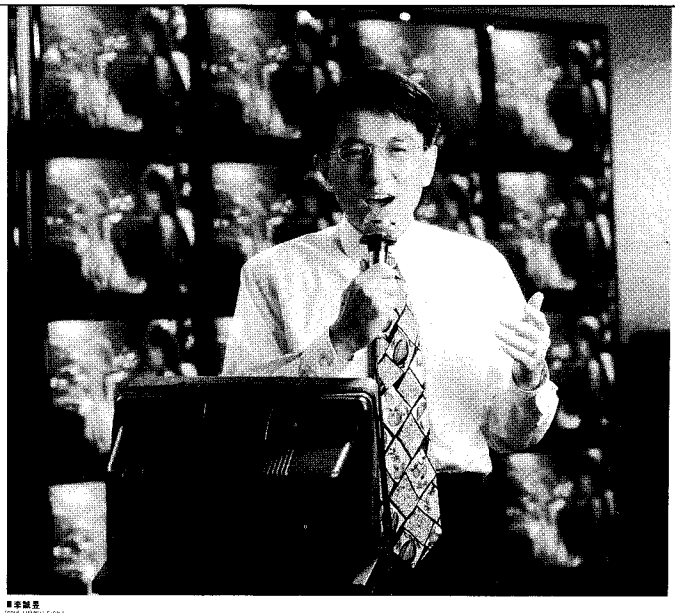
=당시 우리 학교는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포장은 제가 총학생회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표로 받은 것이고, 그때는 간부, 일반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독재타도에 앞장섰습니다. 시위 도중 이기태 열사가 총에 맞아 죽은 일이 아직도 마음 아픕니다.

—학교 당국에 당부하고픈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가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교수님과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신명나게 연구하고 면학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미사여구보다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의 뒷받침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김중석 기자〉

젊은 금성, 젊은 마인드①
New…ing
GoldStar



60%의 과장은 신세대!
「백일째 만남」으로 가수왕에 도전한다.

금성의 과장급 직원 130명에게 물었습니다.
물라의 최신곡「백일째 만남」으로 가수왕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람이 60%!
사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그들의 나이가 대개 30대라는 걸 감안하면 다소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금성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년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세계가 변하는 지금, 금성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달라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금성,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GoldStar